

종이서류 없는 '창구 디지털 시스템' 도입

전북은행, 오늘부터... 태블릿 모니터·전자펜 등 디지털 기기 이용한 은행업무 가능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16일부터 종이서류 없이 전자서식으로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창구 디지털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PPR(Paperless Process Re-engineering)시스템은 태블릿 모니터와 전자펜, 스캐너, 전자서식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종이 서류 없이 은행업무가 가능한 친환경 디지털 창구 시스템이다.

고객이 은행 거래 시 작성해야 하는 다양한 종이 서류를 전자 서식으로 바꿔 고객이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중복적으로 작성해야 했던 서명도 간소화 기능을 통해 1회 서명만으로 가능해지는 등 서류 작성 시간을 대폭 감소시켜 고객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이들 영업점 직원들도 필요한 서식을 찾거나 종이 서류를 출력하면서 발생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진다.

이 뿐만 아니라 후산업무 처리시간도 단축돼 대고객 금융 상담에 집중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 또한 높아져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전북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전 영업점 확대 실시에 앞서 지난 2월부터 일부 영업점을 통해 시범 운영해 왔다"면서 "고객 및 직원들의 혼선을 없애도록 사전 준비 단계를 거쳐 차질 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고객 니즈에 따라 스마트한 금융서비스 확대 및 고도화를 통해 고객들을 위한 더 나은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16일부터 종이서류 없이 전자서식으로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창구 디지털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사진=전북은행 제공, 사진은 본문의 내용과 무관.>



NH농협손해보험 연도대상 시상식

NH농협손해보험 전북총국(총국장 임정현)은 지난 12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개최된 '2017 NH농협손해보험 연도대상 시상식'에서 전북관내는 사무소 부문 8개 농·축협, 개인부문 8명이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종합부문 최우수사무소는 오수관촌농협, 장수농협, 지리산농협, 우수사무소는 구전동농협, 북전주농협이다.

일반보험부문 최우수사무소는 남원축협, 우수사무소는 무진정축협, 생골농협이 수상했다.

특히 무진정축협은 3년연속, 오수관촌농협은 2년 연속 연도대상 사무소 수상을 하는 영광을 안았다.

개인부문은 유영철(구전동농협), 서재형(남원농협), 최운임(동김제농협), 최

영덕(익산농협), 조일승(남원농협), 신미영(장계농협)과 신인상에 양이남(남원농협), 서운희(고창농협)이 수상했다.

특히 동김제농협의 최운임 차장은 2013년부터 5년 연속 연도대상에 수상하는 기록을 세웠다.

임정현 총국장은 "전북지역의 여건상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창의적인 기법으로 농협사업과 농협발전에 크게 기여한 수상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2018년에도 농가소득 5,000만 원 달성과 농업인 실익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농·축협과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가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최수호 기자

소수시장 '순환' 경쟁 재개

처음처럼도 도수 인하 추진

하이트진로의 '참이슬 후래쉬'가 알코올 도수를 낮추자 국내 소수시장 양대 경쟁자인 '처음처럼'도 도수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일단 도수를 낮추는 방향은 기정사실이다. 다만, 기존 저도주 제품들과 충돌 우려 등이 있는 만큼 얼마나 낮출지가 관건이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롯데주류는 기존 17.5도짜리 처음처럼의 알코올 도수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쟁제품인 참이슬 후래쉬가 알코올 도수를 인하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하이트진로는 오는 16일 출고분부터 참이슬 후래쉬의 도수를 기존 17.8도에서 17.2도로 낮추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처음처럼이 참이슬 후래쉬보다 도수가 높아지는 셈이다.

현재 롯데주류는 17.5도짜리 '부드러운 처음처럼'과 21도짜리 '진한 처음처럼', 16.8도짜리 '순환 처음처럼'을 각각 판매하고 있다. 하이트진로의 참이슬도 참이슬 후래쉬 외에 각각 20.1도와 16.9도짜리 참이슬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주력상품인 부드러운 처음처럼과 참이슬 후래쉬가 서로 치열한 경쟁을 벌여온 가운데 부드러운 처음처럼은 그동안 대체로 참이슬 후래쉬보다 낮은 도수를 유지하면서 부드러운 소주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이 때문에 롯데주류 역시 새로 바뀐 참이슬 후래쉬보다 도수를 더 인하하는 방안을 놓고 고민 중인 가운데 조만간 인하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어느 정도까지 도수를 낮출지가 관건이다. 참이슬 후래쉬가 17.2도로 낮아진 상황에서 이보다 더 낮추는 방안은 선택지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일단 17.0도나 17.1도 정도로 낮추지 않겠느냐는 게 대체적인 업계의 관측이다. 기존 16.8도 제품이 있는 만큼 서로 충돌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16.8도짜리 제품도 함께 도수를 낮추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지만 14도대의 저도주인 '처음처럼 순환'이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하는 만큼 쉽지는 않다. /최수호 기자

전북농협, 우수 농업인 경영체 현판식

전북농협은 13일 허식 농협중앙회 부회장, 유재도 전북농협 본부장, 윤태진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벤처센터에서 그린로드 작두콩커피의 청년창업보육 종합컨설팅 우수 농업인 경영체에 대한 현판식을 가졌다.

작두콩커피 김빈을 생산하는 김지용 그린로드 대표는 2017년 한국농수산대학을 졸업한 정음시 태안면의 청년창업 농부로 지난해 농식품 아이디어(TED) 경연 대회에서 최우수상인

농협중앙회장상을 수상한 바 있다.

또한 농식품클라우드펀딩(스토리펀딩)성공,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스토리텔링을 통한 판매 확대 등 남다른 열정으로 농업을 선도하고 있는 대표적인 농업인 경영체다.

유재도 본부장은 "우수 농업인 경영체에 대해 하나포드, 농협 물, 인테나눔 등 다양한 판로 및 매출확대 지원을 통한 농업인 실익증진과 농가소득 5천만원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최수호 기자

"농어촌 꼭 필요한 사업발굴·실행에 최선을 다해 달라"

한국농어촌공사 최규성 사장은 13일 "농어촌에 꼭 필요한 사업발굴과 실행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 사장은 이날 경기 안산에서 열린 농어촌지원개발원·농어촌연구원·인재개발원의 업무보고회에 참석해 "면지역이 고령화와 인구감소, 농어촌을 이끌어갈 후계인력 부족 상황에 위기 의식을 갖고 전자적으로 대처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사는 우선 지난해 1100만명을 돌파한 농촌관광의 경우 민간여행사 등과 협업을 통한 관광상품 개발, 유명리조트 연계 체험휴양마을 관광코스

개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키로 했다.

농촌융복합산업지원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도 강화한다. 생산제품의 판로 개척, 융복합사업자 인증제 관리 및 실태조사 등 지역민 스스로가 성장·발전할 수 있는 체계 마련에도 힘을 기울인다.

농촌의 생활 편의 개선을 위해 도시민의 재능기부 활동을 지난해 8만 7000시간에서 올해 9만 시간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농촌형 교통서비스 모델은 지난해 8곳에서 올해 82곳으로 확대·운영한다. /최수호 기자

청년농업인 창업지원활동 시작

전북농협, 청년 창업농 지원 위한 가입식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은 13일 금마농협에서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농협상호금융에서 출시한 '청년농업인 맞춤형합동장' 확대를 통한 청년 창업농 지원을 위한 가입식을 가지고 청년농업인의 창업지원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가입식에는 유재도 본부장과 청년농업인 박영률(32)씨, 백나진 금마조합장, 오석원 익산시지부장과 지역본부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농협은 농협상호금융에서 청년농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발전 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정부에서는 청년 실업문제 해소와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창업농 육성을 위해 '영농정착지원금' 예산을 편성하고 2022년까지 총 1만명을 선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창업농 육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정착시키기 위해 관련 기관 간의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최수호 기자

제공하며, '영농자금대출' 서비스는 최대 2%의 우대금리로 사업자금 뿐만 아니라 창업 준비 중 긴급자금에 필요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청년 창업농의 특성상 기존 거래 없거나 상대적으로 신용이 높지 않은 경우에도 최고 3천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유재도 본부장은 "청년농업인합동장"을 통해 청년창업농과 청년농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발전 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정부에서는 청년 실업문제 해소와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창업농 육성을 위해 '영농정착지원금' 예산을 편성하고 2022년까지 총 1만명을 선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창업농 육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정착시키기 위해 관련 기관 간의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최수호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서평로 25(덕진동 17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vs.or.kr *전자우편 : jvs@hanmail.net

